

지역기사 입력 2025.02.14 11:10 수정 2025.02.14 11:14

농어촌공 군산지사,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220억 원 투입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220억 원을 투입한다.

군산지사는 이 가운데 우선 은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임차해 청년 창업농과 2030 세대 등에 매도·임대를 하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에 18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 투입 사업 가운데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은 만 65세~84세의 고령 농업인이 영농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해 소유 농지를 전량 매도하거나 농지 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은퇴 후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매도(1ha당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1ha당 연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경영 회생 지원사업에 23억 원을 사용하고,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에 6억 원을 들여 농지 매도 후 영농 생활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직불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나머지 예산은 과수농가에 과원 매도·임대를 지원하는 과원 규모화 사업 2억 원을 배정했다.

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경영규모와 나이에 따른 맞춤형 농지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등의 영농기반 구축과 고령농가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 신청과 상담은 농지은행 포털(<http://www.fbo.or.kr>) 또는 1577-7770으로 연락하면 된다.

주요뉴스

장수군 장계면 지사협, '행복나눔 제빵 봉사활동' 실시

100년 전통 양조장 '성수주조장', 미국 미식업계 진출

이탈리아 바티칸 수도원, 진안 인·홍삼을 활용한 제품개발 순행

"새만금신항 무역항 자문위 결과 즉각 공개하라"



장수군, 고위험군 어르신 대상 치매인지선별검사 실시

장수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접수

전남교육청, 글로벌 신산업 창업체험 '꿈 도전 프로젝트 스타트'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효과 뚜렷 "숨통 트였다"

|재: Gc

광고 옵션

견 보내기

표시된 C

광고삭제